

## 미국 휴스턴 중국영사관 앞에서 진상을 듣고 '3퇴' 하다

[밍후이왕] 미국 휴스턴 중국영사관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매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리며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하고 있다.

### 곳곳의 민심이 장쩌민 고소를 지지

파룬궁 수련생 레베카(Rebecca)가 중년여성에게 진상을 알리면서 전 세계에서 이미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중년여성은 "우리가 서로 웨이신(微信)으로 장쩌민 소식을 주고 받아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레베카에게 보여주었다. 한 장은 '장쩌민의 기념사를 새긴 돌이 중공 중앙당교 교문 앞에서 제거된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우자오창(五角場) 공군 정치학원에 걸려 있던 장쩌민의 기념사가 내려진 모습'이었다. 그 여성은 레베카에게 이 사진을 복사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했다. 레베카는 매우 기뻤다. 보아하니 '장쩌민 고소'는 중국 백성들이 진작부터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소망이었다.



휴스턴 중국영사관 앞에서 비자 대기자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

### 민중이 진상을 알고 '3퇴' 하다

40세 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중국영사관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다. 파룬궁 수련생 다비나(Davina)가 그에게 진상자료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3퇴 보평안(保平安)'이라고 들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그 남성은 자료를 받으면서 '3퇴'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다비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3퇴'란 바로 마음으로부터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해 평안을 보장받는 겁니다.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할 때 오른 손을 들고 평생을 공산당에 바치겠다고 선서를 하면 곧 중공 악령의 낙인이 찍힙니다. 이건 독한 맹세를 한 겁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이 독한 맹세를 해제하지 않고 낙인을 지우지 않은 사람은 그것의 순장품이 됩니다." 이 남성이 말했다. "당신들은 정부를 반대합니까?" 다비나가 말했다. "우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3퇴'해서 평안하시기를 바랄 뿐인데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남성은 또 천안문 분신자살에 대해 물었다. 다비나가 설명했다. "파룬궁은 1992년 사회에 전해지고부터 사람들한테 선을 향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장쩌민 무리가 파룬궁을 증오하도록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살인, 분신자살 연극을 꾸민겁니다." 진상을 알게

된 그 남성은 "오, 원래 이런 일이었군요."라고 말했다. 다비나는 진상 현수막에 있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장기 적출 사진을 가리키며 그 남성에게 말했다. "보세요. 더 악랄한 건 중공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생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현수막의 폭력적인 사진을 본 남성은 격분하면서 퇴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30여 세로 보이는 여성이 중국영사관에서 나왔다. 파룬궁 수련생 레베카가 그 여성에게 중공의 상관 조직에 가입했는지를 물었다. 그 여성은 "나는 공청단에 가입했어요."라고 말하자 레베카는 "그럼 탈퇴해야겠네요."라고 말했다. 그 여성은 레베카의 귀에 대고 "공산당은 곧 망할 거예요. 좋아요. 그럼 리리(莉莉)라는 이름으로 단, 대에서 탈퇴시켜 주세요."라고 말했다.

레베카는 그녀에게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탈퇴하도록 알려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는 "고마워요. 당신들이 정말 힘들어보이는데, 공산당은 정말 나빠요. 나는 마음 속으로 여러분한테 경례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 기록 영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폭로

[밍후이왕]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장기 이식으로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살해 당한 사실을 조사 기록한 영화 '믿기 힘든 사실(Hard To believe)'이 9월 29일 공개됐다. 한 시간에 걸친 이 기록영화는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강제 적출한 중공의 만행과 언론계, 정치계, 의학계의 침묵을 파헤쳤다.

기록영화 '믿기 힘든 사실'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지금도 살아있는 수감자들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록영화는 또 이 세계가 대량의 증거를 앞에 놓고도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를 다루었다. 결론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박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기록영화 '믿기 힘든 사실'에는 작가이자 중국문제 전문가인 에단 구트만, 캐나다 조사팀, 국제 의학윤리학자, 감금을 경험한 파룬궁 수련생 등의 인터뷰가 포함됐다. 전 민주수호재단 연구원인 에단 구트만은 중국문제 전문가다. 그는 박해가 시작될 당시 중국에 있었다. 구트만은 50만에서 100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또 중공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인원과 생체 장기적출 희생자 수를 비교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파룬궁 수련생 6만 5천 명이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기록영화 '믿기 힘든 사실'에는 중국 의사



중국문제 전문가 에단 구트만

와 간호사의 전화 녹음도 담겨 있다. 녹음 속에서 그들은 환자에게 장기 기증자가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임을 보증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건강하고 이상적인 장기 공급처로, 사형수보다 낫다고 묘사됐다.



## 홍콩 집회 퍼레이드, 원흉 사법처리와 박해 중지를 호소

[밍후이왕] 2015년 5월 이후 18만 명이 넘는 국내외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원과 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했다. 아시아 각지에서도 5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장쩌민 형사 고발장에 서명했다. 10월 1일에는 파룬궁 수련생과 지지단체가 홍콩 청사완 유원지에서 ‘원흉을 사법처리하고 박해를 중지하라’며 집회와 퍼레이드를 펼쳤다.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사법처리하고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는 건 필연적인 하늘의 뜻이고, 양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홍콩 파룬따파 불학회 대변인 젠훙장(簡鴻章)은 장쩌민 집단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집단 소멸성 박해를 자행해 중국사회를 전면적인 도덕성 결여와 동요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한편 파룬궁 수련생들은 16년 동안 평화적이고 이성적으로 진상 알리기와 반(反)박해를 견지해 점차 억만 민중의 양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2억 1천여만 명이 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공개 탈퇴(‘3퇴’)한 것이 가장 좋은 증거다.

퍼레이드 대열은 주릉의 주요 거리를 통과했고 많은 시민이 사진을 찍었다. 많은 홍콩 시민은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직접 정의의 목소리를 전했다. “저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한편 중국대륙 관광객들은 나아가 ‘3퇴’ 성명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지지와 중공에 대한 혐오를 표시했다.

## 중공의 사악한 본성은 바뀐 적이 없다

[밍후이왕] 많은 사람은 중공(중국공산당)이 서방에서 온 유령이며, 사악한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공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은 바로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는 투쟁을 숭상하는 철학이다.

중공은 제멋대로 전통문화를 파괴했고, 무신론을 퍼뜨렸고, 선악에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부정했고, 폭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오도했다. 중공은 거리낌 없이 하늘과 땅과 사람에 맞서며 신과 부처를 비방했으니 그는 곧 마귀가 아닐 수 없다.

1999년 7월, 중공의 장쩌민 등 정치 건달 무리가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이후로는 거짓말 세뇌와 이익 유혹까지 더했고,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

람을 매수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게 했다. 그중 적지 않은 사람은 파룬궁 진상을 아주 잘 알고 있고, 파룬궁이 사람들을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익을 위해 기꺼이 중공 장씨 집단의 출가가 되었다.

중국 대륙에서 장쩌민 고소라는 경천동지하는 큰 물결이 일어난 후에도 일부 사람은 여전히 형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을 더욱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히게 마련이고, 악한 것이 극에

## 택시기사, “빨리 탈퇴시켜 주세요.”

[밍후이왕] 그날 나는 택시를 타고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중공 고관들의 부패와 함께 ‘3퇴’하면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 ‘3퇴’라는 말을 들은 기사는 바로 흥분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나는 입단했었는데 빨리 탈퇴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에 한 형님이 내 차를 타고 가면서 ‘3퇴’ 이야기를 했는데, 저더러 만약에 공청단과 소선대에 가입했거나 지금 공산당원이라면 반드시 탈퇴하라면서 왜 탈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나는 이해가 안됐고, 어차피 공산당을 안 믿으니 탈퇴하든 안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형님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죠. ‘기억하세요. 차를 몰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를 외우거나 큰소리로 외치면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기사는 이어서 말했다. “이틀 지나서 청년 두 명이 내 차를 탔어요. 차가 외진 골목에 갔을 때 두 청년이 내리겠다고 했어요. 내가 차를 막 멈췄는데, 내 옆에 앉았던 친구가 갑자기 칼을 내목에 댔고, 뒤에 앉았던 친구는 앞으로 뛰어와서 차문을 열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머리에서 ‘앵’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명해졌죠. 그 때 갑자기 그 형님이 차에서 내릴 때 한 말이 생각났어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죠. ‘파룬따파 하오! 파룬따파 하오! 파룬따파 하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두 강도가 칼을 버리고 뛰어 달아났어요. 그들 그림자가 안 보이게 돼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나는 온 몸이 식은 땀으로 젖은 채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갔고, 동료들을 만나서 알려줬어요. 자네들, ‘파룬따파 하오’라고 외치면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건 정말이네! 저는 또 동료들한테 파룬궁 수련생을 다시 만나면 저는 반드시 ‘3퇴’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기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가명을 지어 기사가 중공의 부속 조직인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하도록 도와주었다.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천기(天機)를 알려 주고 있다.

달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선악 응보의 법칙이다. 장쩌민과 중공이 발동한 파룬궁 박해 운동은 불법(佛法)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佛法) 수련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잃게 했다. 심지어 살아 있는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며 돈벌이로 삼았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은 이 지구에서 유례가 없는 사악한 행위로,

천지를 진노시켰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고, 장쩌민을 고소하는 큰 조류는 하늘의 뜻이며 민심의 지향이며 역사의 흐름이다. 누구든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쩌민 고소를 막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훼손하는 것이다. 장쩌민 고소를 지지하고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3퇴’)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현명한 선택이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